

소설에 나타난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과 관련용어의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and the Terminology of Sanitary Spaces in Korean Houses Based on the Analysis of Novels*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부교수 김 대 년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 Housing, Seowon Univ.
Assoc. Prof. : Kim, Dae-N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생리위생공간의 위치와 설비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소설 속의 생리위생공간 용어 | 참고문헌 |
| IV. 생리위생공간 용어의 변화와 그 의미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transition and terminology of sanitary spaces in Korean houses, based on the analysis of nove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anitary space has been developed in all aspects including locations and facility levels. Duikan, Pyunso, Tongsi, Whajangsil, and Yoksil were the terminology of sanitary space that appeared often in the novels. Before 1930, the word most frequently mentioned was Duikan. Whajangsil and Yoksil appeared shortly between 1930-1950. Duikan, Pyunso, and Tongsi were presented again between 1950-1970. Whajangsil and Yoksil were substituted for most other words after 1980.

Other than the usual function of sanitary space, these areas were also used as hiding spaces and places where one could observe others secretly. The sanitary spaces in most novels were located behind kitchens, nearby fences or stables and were typically unpleasant places with a messy dung tub, no lighting system, and a shed-like construction.

* 본 연구는 1998년도 서원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이 접하는 다양한 공간 중에서 주거공간은 그것이 소속된 사회의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는데 특히, 위생생리공간은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

주택이나 주거생활 관련연구들은 제학문 분야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연구방법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주거공간에서의 삶의 주체인 인간의 주거생활, 주거의식, 주거행동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거실, 욕실, 아동실 등 개별공간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공간 용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적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공간 용어들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어떤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며, 정체성이 있는 용어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만일 용어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지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공간 용어에 대한 연구에는 설계도면을 분석하는 방법,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방법, 주거생활사의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 등이 시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주거공간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은 외국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으며(Frank, 1979; 서귀숙, 1996), 우리 나라에서도 주거공간의 용어변화에 대한 연구(신화경 외, 1998; 서귀숙 외, 1998)에서 문학작품이 이용됨으로써 공간 연구에 문학작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주택에서 배변행위와 목욕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욕실, 목욕탕, 화장실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또, 변기와 세면대만 갖춘 공간을 싸우더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들 공간 용어들은 과연 적절한 명칭인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이 시대

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관련 용어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려 한다. 즉, 선행연구의 고찰과 문학작품의 분석을 병행하여 1900년 이전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 주택에서의 생리위생공간의 변천을 정리하고, 관련용어의 종류와 변화과정, 생리위생공간의 의미, 위치와 설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생리위생공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한국 주택의 공간용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들에 우리의 생활공간이 가능한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생리위생공간은 한국 주택의 기본 구조인 방, 마루, 부엌은 아니지만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위생공간이라는 것과, 다른 어떤 주거공간에 비해서 경제수준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하므로 그 사회의 문화 및 기술의 척도가 된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정체성 있는 주거공간 용어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 단계에서는 주거공간 연구에 문학작품이 이용될 수 있는지, 한국 생리위생공간은 어떤 변화를 거쳤으며 관련 용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2단계에서는 소설의 문장분석을 통해서 생리위생공간이 소설 배경으로 등장하는지, 소설에 등장하는 관련 용어의 종류와 빈도는 어떠한지, 생리위생공간 용어의 변화과정은 어떠한지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생리위생공간의 위치와 설비수준은 어떠한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소설로 제한한 이유는 문학작품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연구대상의 선정에는 소설 전공인 국문학자(서원대 김외곤 교수, 경희대 김현주 교수)의 도움을 받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각

〈표 1〉 연구에 이용된 소설의 유형과 배경시대

소설유형 배경시대	대하편	장 편	중 편	단 편
1900년 이전		3		
1900~1930년 이전	1	5	1	4
1930~1950년 이전	1	1	2	5
1950~1960년 이전		3	2	17
1960~1970년 이전		1	1	7
1970~1980년 이전			2	1
1980년 이후				6

시대를 대표하면서 주거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선정되었다. 시대별로 소설을 분류한 후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 받았다. 소설유형에는 대하편, 장편, 중편, 단편이 포함되었으며(표 1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서귀숙 외(1998)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정받은 소설을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읽어가면서 소설별로 주거공간 용어가 나오는 모든 문장을 발췌하여 관련문장, 쪽수, 행 등을 기록하였다.

둘째, 각 소설에서 발췌한 문장을 단위주거 공간별(예: 안방, 사랑방, 마루, 부엌, 변소 등)로 다시 정리하였다. 셋째, 주거공간 용어의 변화과정을 밝힌다는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면서 각 단위공간의 특성에 맞는 연구내용을 정하여 공간의 위치와 설비, 의미, 용도 등의 변화과정을 밝혔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주거공간의 연구와 문학작품

문학작품 속의 공간은 실제의 공간이 아닌 허구의 공간, 이미지 공간이지만 독자는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즉, 문학작품 속의 공간에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의미의 본질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 묻어있다(서귀숙 외, 1998).

문학작품에 표현된 문장에는 주택을 구성하는 요

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주거공간 중 선택된 장소 즉,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서귀숙 외, 1998). 문학작품 속의 공간은 작가의 심층을 통하여 표현되었으므로 실제 보여지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간이 갖는 본연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또, 작가는 어떠한 문화현상에서도 다수의 독자를 상정하면서 글을 쓰게 되므로 어떤 의미에서 문학작품은 작가와 독자의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이 발간되는 시점에서 그 작품은 작가의 의사와는 별개로 그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호가 된다(신화경 외, 1998).

이와 같이 작가는 소설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일정 사회에서의 일정 공간에 대한 감각을 독자와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작품은 장소, 공간에 대한 체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생활공간을 묘사한 문학작품 자료로 활용되며 주거공간에 대한 근원적 인식을 표현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주거공간이나 주거공간 용어를 밝히기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한국 생리위생공간의 변천

주택의 위생시설 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 기술을 가능하는 척도이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주거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생생리공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윤복자, 1995).

조선시대 상류주택인 견지동 윤씨가(1800년대 건축)는 남자를 위한 외측이 청지기방, 가마고, 마방이 있는 사랑 행랑채 한 구석에 자리잡고, 여자를 위한 내측은 쌀광, 장작광, 노비방이 있는 안채의 중문간 행랑채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또, 중류주택인 무교동 신씨가(1820년대 건축)는 외측이 사랑 모퉁이에, 내측이 안채 옆 행랑채에 있었다(주남철, 1990). 서민주택은 눈에 띄지 않는 마당 한쪽에 변소를 두었으며, 농가에서는 변소를 밭 가운데 두어 다른 집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한테 변소로 사용하였다(윤복자, 1995). 홍형욱(1995)에 의하면, 1880년대에 맨발로 갈 수 있는 실내변소, 쇠로 만든 욕조의 편

리성, 서양식 욕실과 수세식 설비가 처음 소개되었으며, 1900년 이후 안변소와 바깥변소 중에서 안변소를 없애고 바깥변소를 남녀 구별없이 같이 사용하였다.

강릉 선교장은 1920년대는 욕실이 없어 부엌 후면에 짚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였으나 1930년대는 사랑채 왼쪽으로 세면간, 측간, 욕실방, 광 등이 있는 행랑이 있었는데 이 욕실은 기존의 광을 개조한 것이었다(주남철, 1990). 일제시대 상류층의 문화주택에는 욕실과 변소가 실내에 계획되었고 중류층의 개량한옥에는 화장실을 행랑채의 끝이나 대문 옆에 두었다. 또, 영단주택 5종(갑,을,병,정,무) 중에서 서민과 근로자가 입주했던 병형에는 욕실과 변소를 현관 옆에 배치하였고, 정형과 무형은 변소만을 현관 옆에 두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도 변소를 마당 한구석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대지가 협소한 경우에는 변소를 본체에 붙여서 지었는데 이 경우에도 변소의 출입은 외부에서 하도록 계획하였다(윤복자, 1995). 이 당시에도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경우와 같이 사랑변소, 안변소, 하인변소, 뒷채변소를 따로 둔 경우도 있었다(홍형욱, 1995). 우리나라 아파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행촌아파트(1956년 건축)에는 현관 옆에 욕실이 계획되었고 내부에는 양변기, 세면대, 욕조가 설치되었으며, 종암아파트(1958년 건축)는 욕실을 들어가면 그 안에 다시 화장실 문이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이영심 외, 1995).

동아일보(1959년 8월)에 실린 대도시 공공변소를 수세식으로 고친다는 기사(신경주 외, 1992)에서 수세식설비는 1960년에 보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나, 1960년 이후에도 운수사용 때문에 욕실은 부엌에 배치하고, 변소는 대문 옆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소를 욕실에 인접시키고 실내에서 출입하게 계획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는 욕실과 화장실이 일실화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윤복자, 1995), 20평 이상의 건물에 수세식변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동아일보의 기사(신경주 외, 1992)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최찬환(1983)은 1973년에서 1983년까지 농촌과 도시의

주거양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화장실은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주택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했는데 차츰 집밖, 부속건물, 주택의 외부출입, 주택내부, 실의 전용이라는 5단계를 거치면서 위치가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1980년대는 욕실과 침실의 인접성이 높아졌으며(윤복자, 1995), 1987년 수세식화장실 개량에 구청이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기사(신경주 외, 1992)에서 88올림픽을 계기로 생리위생공간의 설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의 용어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 용어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정경숙(1987)은 욕실에 관한 연구에서 변소와 관련된 용어에는 측간, 통시(간), 동내, 동숫간, 북간, 정랑(간), 소맷간, 경냥, 회치장, 혼측 등이 있다고 하였다.

국어대사전(이희승, 1998: 전체 4772쪽)에 수록된 생리위생공간 관련 용어는 내측, 동내, 동숫간, 뒷간, 똥독간, 똥뒹간, 똥수간, 똥시, 똥시간, 똥통, 목욕간, 목욕실, 목욕장, 목욕탕, 변소, 북간, 서각, 세면장, 소맷간, 시뢰, 안뒹간, 외측, 욕실, 욕탕, 정랑, 측간, 측실, 측청, 통시, 화장실, 혼측, 회치장으로 32종류가 있다.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생리위생공간 용어와 그 정의는 <표 2>와 같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변소는 '대소변을 보게 된 곳, 뒷간, 측간, 화장실', 뒷간은 '대소변을 누는 곳'이다. 똥독간, 똥뒹간, 측간, 측실, 혼측 등은 모두 '뒷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 동숫간, 똥수간, 소맷간, 정랑, 통시 등은 '뒷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방언이다. 즉, 생리위생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뒷간, 변소, 화장실이다. 목욕간, 목욕실은 목욕행위를 위한 주택내의 방이나 장소로 정의되며, 목욕탕은 주택내의 공간이 아닌, 돈을 받고 목욕시설을 제공하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동아일보(1959년 3월)의 '화장실의 거울'이라는 기사였다(신경주 외, 1992).

<표 2>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생리위생공간 용어와 정의

용어	정의
내측	안뒷간
뒷간	대소변을 누는 곳, 변소
똥독간, 똥뒷간, 측간(廁間), 측실(廁室), 측청(廁圃), 혼측(溷廁), 회치장(灰治粧)	뒷간
똥통	뒷간에 똥이 담기는 통
목욕간	목욕하는 방으로 쓰는 간살. (준말) 목간
목욕실	목욕통이 있고 급수시설이 있는 방. (준말) 욕실
목욕장	목욕을 하는 곳
목욕탕	목욕하는 모든 설비를 갖추고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목욕을 하게 하는 곳. (준말) 욕탕
변소	대소변을 보게된 곳. 뒷간, 측간, 화장실
세면장	세면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
안뒷간	안채에 딸린 부녀자용의 뒷간, 내측
외측	남자변소
측청(廁廳)	크게 잘 꾸민 뒷간
화장실	화장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춘 방. 변소를 점잖게 이르는 말. 레스트룸
방언 (해당지역)	똥숫간(전북, 충남), 똥수간(충남, 함북), 똥시(경상), 똥시간(경남), 소맷간(전라), 서각(황해), 정랑(강원), 통시(제주, 전라, 경상), 동네/북간(지역이 명시 안됨)

이희봉(1986)은 사용기준상 목욕보다 대소변 행위의 비중이 더 크므로 변소이나 고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장실이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조성기(1978)는 실내에 세면장, 변소, 욕실을 통합한 화장실 형태가 도입되었다(정경숙, 1987: 재인용)고 함으로써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정경숙(1987)은 변기만 있는 공간은 변소, 세면대만 있는 공간은 세면실, 욕조만 있는 공간은 목욕실, 변

기와 세면대가 함께 있는 공간은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변기, 욕조가 모두 있는 공간은 욕실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생리위생공간과 관련된 논문(강순주 외, 1989; 서동연, 1990; 이영심 외, 1995; 이영심 외, 1998)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 공간을 욕실이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

III. 소설 속의 생리위생공간 용어

1. 생리위생공간과 소설의 배경

생리위생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소설은 안방, 사랑방, 마루, 대청, 부엌, 정지 등 다른 주거공간이 등장하는 소설의 작품수와 비교하여 적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장에 등장하는 빈도는 매우 적었으며, 문장에 등장하더라도 단편적인 내용이 짧게 묘사되었고 생활내용, 내부구조, 시설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예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63개 소설 중에서 생리위생공간이 등장하는 작품은 임격정(홍명희), 무정(이광수) 등 23개(표 3 참조)로 전체 소설의 36.5%에 해당되었다.

2. 생리위생공간 용어의 종류와 빈도

소설에 등장한 생리위생공간 용어(표 4 참조)는 15종류이었으며 이를 빈도순으로 열거하면, 뒷간→변소→통시, 화장실→욕실→목욕탕→똥숫간→목욕간→세면장, 칩간, 안뒷간, 똥두간→측간, 똥통, 변기통의 순이었다.

생리위생공간 용어의 출현빈도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빈도자체가 소설의 분량에 영향을 받는다 고 보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빈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학작품에서는 설계도면에서 알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공간의 의미와 용도, 공간의 수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점을 지닌 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장편이 적게 선정된 시대는 중편이나 단편의 수를 늘림으로써 소설 자체의 분량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였다.

국어대사전(이희승, 1998)에 수록된 32개의 생리위생공간 용어 중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용어는 46.9%인 15개이었다. 내측, 동내, 동숫간, 똥뒹간 등 17종류의 용어는 소설에 나오지 않았다. 똥뒹간, 똥숫간이 소설에는 똥두간, 똥숫간으로, 뒹간이 뒹간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전의 표기대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사전에는 똥통이나 변기통이 '뒹간에서 똥이 담기는 통'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소설에서는 뒹간이라는 장소의

의미(차례가 되면 아마 뜨거라 똥통으로 부리나케 뛰어 들어가기.../ 장석조네 사람들, p.14:15)로 사용되었다. 또, 논문이나 학술서적에 나오는 내측 또는 외측이라는 용어는 소설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IV. 생리위생공간 용어의 변화와 그 의미

주택은 산업기술과 경제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한국의 생리위생공간은 급배수, 냉난방 등 설비기술의 직접적인 영향과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위치, 설비수준 등이 바뀌면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표 3〉 연구에 이용된 소설의 배경시대와 작품명

배경시대	작 품 명
1900년 이전	춘향가*, 흥부전, 임궫정*
1900~1930년 이전	대하*, 귀의 성, 삼대, 무정*, 화수분, 고향, 흙*, 배따라기, 흥가, 토지*
1930~1950년 이전	허물어진 환상, 토지*, 창랑정기, 경영, 인간사*, 맥*, 소, 감자, 벌을 헨다
1950~1960년 이전	애미, 비오는 날*, 월훈, 장마*, 관춘수필, 난리 그 뒤, 남풍, 미망, 고무신, 머루*, 수련, 은넛골 이야기*, 매아리*, 화산택이*, 오지에서 온 편지*, 어린 상록수, 태양의 유산, 언덕을 향하여, 장씨 일가, 흰종이 수염, 남한산성, 노을*, 전황당인보기
1960~1970년 이전	젊은 느티나무*, 투기, 이브의 변신, 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벌룬*, 아홉켢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여도, 흑산도, 껌뻐판리
1970~1980년 이전	노을*, 장석조네 사람들*, 우묵배미의 사랑*,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지상의 방 한 칸*
1980년 이후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떠 있는 망루*, 목마른 계절, 모든 벽은 문이다, 그림자 외출, 외딴 방

*생리위생공간 용어가 나오는 소설

〈표 4〉 소설에 등장한 생리위생공간 용어의 종류와 빈도

배경시대	축간	취간	뒹간	안뒹간	똥두간	똥통	똥숫간	통시	변소	변기통	화장실	욕실	목욕탕	목욕간	세면장
1900년 이전	1	2	19	2											
1900~1930년 이전			21				4	6	2			1	2		
1930~1950년 이전			1					1	2	1	5	1	1	3	
1950~1960년 이전			6					4	7						
1960~1970년 이전			1					4			1		3		
1970~1980년 이전			2		2	1		4	14		2		1		2
1980년 이후									2		11	2	2		
계	1	2	50	2	2	1	4	19	27	1	19	7	6	3	2

뒷간이라는 용어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00년 소설에서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1900-1930년에 특히 많이 등장하였으며, 주택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났던 1930-1980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다. 뒷간은 다른 시대에 비해서 1950-1960년에 많이 나오는데 이는 6·25 이후 주거수준이 열악해진 것과 관계가 큰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문장을 보면, 뒷간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숨는 장소, 고사지내는 장소로 인식되고 실제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응쟁이가 우리 뒷간에 놓구 고사지낸 밥인디...버렸담?(노을, p.408)
- * 석이 엄마는 연이와 뒷간 옆에 숨어서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머루, p.38:18).

또, 뒷간이 대부분 본채와는 떨어져 있었으며, 실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 부엌 뒤에 떨어져 있는 뒷간을 왔을 때 안방에서 나직나직한...(임격정 4권, p.159:18).
- * 뒤를 보려고 마굿간 옆 따로 떨어져 있는 뒷간에 나와 있었다(임격정 8권, p.115:17).
- * 뒷간으로 가려고 상현이 뒤편으로 돌아가는데...(토지 7권, p.398:28).
- * 만이 말에 의하면 박생원은 밤중에 뒷간엘 나갔는데...(은넷골 이야기, p.185:11).
- * 그러나 뒷간이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위생적이다(오지에서 온 편지, p.300:14).
- * 정씨가 와랑와랑 가래를 끓이며 뒷간으로 가는 것은 대개...(지상의 방 한 칸, p.334:3).

소설 속에서의 뒷간은 다음과 같이 시설설비가 열악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 * 뒷간은 바자를 두르고 붓돌 두 개를 놓으면 그만이었다(흙, p.227:13).
- * 뒷간 널빤지까지 변소가 다락다락 차올라...(장석조네 사람들, p.53:26).

안뒷간은 1900년 이전에 배경인 '임격정'에 나와

남녀의 생리위생공간이 유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안뒷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설배경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다(홍형욱, 1995 참조).

- * 나는 마침 안뒷간의 거름을 채마머리에 있는 두 엄뎀이로 퍼내는...(임격정 5권, p.237:8).
- * 그 기집을 보고 간다 말 한마디...안뒷간 앞으로 들어갔었네(임격정 5권, p.254:3~4).

통시는 1900년 이전 소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1900-1980년에 꾸준히 등장하다가 1980년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다. 또, 등장인물의 출신지역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졌는데 이는 통시가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의 방언(이희승, 1998)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해 준다.

- * 임이네가 봤다 안 카나, 새복에 통시에 갔다가(토지 1권, p.182).
- * 니네없이 설사개나 뻘다고 통시출입이 꽤 바빨끼다(노을, p.23).

변소라는 용어는 '흙'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이는 유치원의 변소를 지칭한 것이었다. 1950년 이전까지 변소보다는 뒷간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1950년대와 1970년대에 변소가 많이 등장하였으나, 1980년 이후는 화장실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 동욱이가 변소에 간 틈에 될 수 있는대로 위로해 주지 않고...(비 오는 날, p.20:11).
- * 변소에도 가기 싫다던 이가 어딜 가자는 거냐고 물으며 불안한...(인간사, p.69:33).
- * 밖을 몰래 엿볼 수 있는 변소 속으로 들어갔다(노을, p.371).
- * 변소가 하냥 지전분한개로 변소 입자더러 때려줄 놈이라는...(장석조네 사람들, p.190:3).

화장실이라는 용어는 1930-1950년이 배경인 '토지 12권'에 처음 등장하였으나, 다른 소설에는 그 이후에도 별로 나오지 않다가 1980년 이후에는 생리위생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소설에서 화장실은 지금까지의 생리위생공간과는 다른 깨끗한 장소로 표현되었다. 이희승(1998)의 사전에는 화장실을 '변소를 접잖게 부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으나, 1970년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화장실은 시설수준이 높고 실내에 위치하며, 배변활동뿐 아니라 머리감거나 목욕이 가능한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 * 화장실에 들어간 그가 타월에 목을 걸치고 팬티 바람으로 나오더니...(크리스탈 속의 토요일-떠 있는 망루, p.149).
- * 이윽고 남자가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자 그녀는 화장실 안을 맑끔히 닦았다(책 읽어주는 남자-그림자 외출, p.103).

'토지'를 보면, 전반부는 생리위생공간이 뒷간으로 지칭되다가 12권부터 화장실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통시로 표현된 것도 있기는 하나 이는 배경공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통시 같 때 다르고 나올 때 맘 다르다.'/12권 p.200:3; '뒷간에 가서 불일 다 못 보고 나온 사람같이...'/15권, p.224:6)을 인용한 것이었다.

아래의 문장을 보면, 뒷간, 화장실 등 용어에 관계 없이 생리위생공간 용어에 '간다', '나온다' 등의 동사를 접속시켜서 생리위생공간에서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김서방은...얼마 되지 않아 비틀거리며 뒷간으로 간다(토지 2권, p.385:18).
- * 과부는 환이 뒷간에 간 뒤 술병에 새 술을 채워 놓았다(토지 4권, p.200).
- * 흥이는 뒤 안으로 뛰어간다. 뒷간에서 소피를 보고 난 뒤...(토지 7권, p.73:22).
- * 올빼미 걸은 눈을 희뜨고 말 한마디 없이 뒷간으로 가더마(토지 9권, p.428:24).
- * 조용하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두 시간쯤 지났을 때...(토지 12권, p.163:26).
- * 화장실에라도 가는 듯, 복도에 나왔을 때 오가다는 현기증을...(토지 13권, p.473:19).
- * 식당을 돌아서 화장실로 가는데 응원이라도 하듯

통탕통탕 뛰어서...(토지 16권, p.69:8).

목욕탕, 욕실, 욕탕이라는 용어는 1900-1930년이 배경인 소설에 등장하여 화장실이 처음 등장한 시기인 1930-1950년보다 앞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용어는 배변과 목욕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배변공간으로 변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 목욕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주택에서 배변과 목욕을 겸할 수 있는 욕실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이후에는 욕실의 의미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래에 제시된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즉, 욕실의 사용방법이나 내부구조가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으나 앞뒤의 내용에서 이들 공간은 배변과 목욕기능을 겸한 복합공간으로 표현되었다.

- * 잠깐 욕실을 다녀 나오더니 긴 의자에 가서...(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벌룬, p.476).
- *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꾸민 욕실에 들어가 가볍게 세수를 하고...(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p.119).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은 지칭되는 용어뿐 아니라 그 의미가 배경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생리위생공간 용어 중에서 190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뒷간이었으며, 다음은 통시와 변소이었다. 그러나, 통시는 1900-1930년의 소설에 많이 사용되었고 변소라는 용어는 1970-1980년 소설에 많이 등장하였다.

1930-195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는 뒷간, 변소, 통시가 적게 등장하고, 그 대신에 화장실, 목욕간, 목욕탕, 욕실이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주택이 한국에 많이 유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1950-1960년대의 소설에는 화장실, 목욕간, 목욕탕, 욕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변소, 뒷간, 통시가 높은 빈도로 다시 등장하였는데 이는 6·25동란으로 인하여 주거수준이 악화되었기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1970-198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는 생리위생 공간 용어의 종류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이들 용어가 4가지로 줄어들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화장실이었다.

V. 생리위생공간의 위치와 설비

1. 생리위생공간의 위치

소설의 문장분석 결과, 한국의 생리위생공간은 부엌 뒤, 삼작 밖, 담 밑, 마구간 옆 등에 위치하였다.

- * 마구간 옆에 따로 떨어져 있는 뒷간에 나와 있었다(임격정 8권, p.115:16~18).
- * 할머니를 줄라 집채에서 한바탕 멀리 떨어진 칩간까지 동행을 해야만...(장마, p.175).
- * 뒷간이 저만치 떨어진 담 밑에...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받고 다녀야 한다(오지에서 온 편지, p.300:11~12).

또, 본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기가 무섭고, 비오면 우산이 필요하며, 심지어는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리거나 죽기도 하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 뒷간에서 나오다가 아이구 소리 한번하고 호랑이에게 물리어...(임격정 7권, p.199:14).
- * 밤중에 뒷간엘 나갔는데...눈 위에 모로 쓰러졌다라고(은넛골 이야기, p.185:12~13).

그러나,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부터 위치가 실내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 * 화장실에라도 가는 듯, 복도에 나왔을 때 오가다 는 현기증을...(토지 13권, p.473:19).
- * 식당을 돌아서 화장실로 가는데...통탕탕탕 뛰어서...(토지 16권, p.69:8).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설 속에서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은 본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혼자

가기가 무섭고 비오면 우산이 필요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위치는 부엌 뒤, 담 밑, 마구간 옆 등이었다. 그러나, 1930년 이후의 배경소설에서는 흔한 경우는 아니나 상류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리위생공간이 본채의 옆 또는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생리위생공간의 설비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의 설비수준을 소설의 문장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00년 이전부터 1980년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대부분에서 생리위생공간을 밤에는 불을 들고 가야 하고, 지붕도 없으며,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불편하고 더러우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뒷간에 가실랍니까? 어두우니 불을 가지고 가시지요(임격정 9권, p.249:7).
- * 수수깡으로 이리저리 얹어놓은 뒷간에서 용변을 끝내고...(토지1권, p.292).
- * 뒷간은 바지를 두르고 붓돌 두 개를 놓으면 그만이었다(흙, p.227:13).
- * 마당의 솔가지 울에 지붕 없는 변소가 전부로서, 마루 한쪽 안 놓이고...(노을, p.415).
- * 널빤지 바로 밑에까지... 차오른 변소사정 때문에...(장석조네 사람들, p.86:11).
- * 마이클은 변소문을 열자마자...오만상을 찡그린 얼굴로 뒷걸음질을...(장석조네 사람들, p.205:3~7).
- * 이 식구들에게 유일한 변소 앞에 긴 줄을 서다못해...(장석조네 사람들, p.14:13).

또, 뒷간을 만들면 분노를 거름으로 쓰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며, 뒷간을 실내에 계획하는 것은 비위생적인 것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 * 안뒷간의 거름을 채마머리에 있는 두엄땀이로 퍼내는 중...(임격정 5권, p.237:11)
- * 거름이 아쉬워 두고두고 별러만 오던 뒷간이었다(메아리, p.171:18).
- * 뒷간이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위생적이다

(오지에서 온 편지, p.300:11~12).

* 뒷간은 역시 없었다.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화산택이, p.50:28~32).

위의 내용에서 소설 속에 나타난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은 그 설비가 열악된 상태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생리위생공간은 수수깡, 바자, 술가지를 이용한 허름한 벽에 지붕이 없거나 불이 없어서 어두운 곳, 제대로 피내지를 얹어서 불결한 곳, 공동사용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변소가 실내에 위치하는 것을 비위생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등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소설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아진 1970년대나 1980년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도 생리위생공간이 위생적인 수세식 화장실이나 고급스런 분위기의 욕실(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꾸민 욕실에 들어가 가볍게 세수를 하고.../압구정 동엔 비상구가 없다, p.119)로 묘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VI. 결론 및 제언

경제수준의 향상과 외래문화의 도입으로 한국 주택의 여러 공간들이 변화되어 왔는데 생리위생공간 역시 위치, 설비 등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마당 한쪽에 위치하던 재래식 변소가 실내로 유입되어 수세식 화장실로 변모하게 된 사회적 계기는 1970년대의 아파트의 대량공급이었으며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과 관련된 용어는 내측, 뒷간, 뚱뚱간, 변소, 정랑, 축실, 화장실 등 32종류로 다양하였으며 소설에는 뒷간, 변소, 통시, 화장실, 욕실 등 15개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배경시대에 따라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생리위생공간 용어는 달라졌다. 1930년까지는 뒷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음이 통시이었다. 1930-1950년에는 새로운 용어 즉, 화장실, 목욕간, 욕실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상류층의 등장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0-1970년의 소설에 다시 뒷간, 변소, 통시 등이 많이 나와 6·25 이후 경제발전 이전까지의 우리 나라의 주거수준을 대변하고 있다. 그 이후 10년간에는 소설의 배경계층에 따라 다양한 생리위생공간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는 용어의 종류가 정리되면서 화장실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음으로는 욕실, 목욕탕 등이었다.

소설에서 생리위생공간은 기본적인 용도 이외에 숨는 장소, 몰래 숨어서 열보는 장소, 고사 지내는 장소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생리위생공간의 위치를 보면, 실내로 유입되기 이전에는 담 밑, 마구간 옆 등 허름하고 구석진 장소로 표현되었다. 설비수준은 불이 없어서 어두우며, 지붕이 없고,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불편한 공간, 비위생적이고 시설이 열악한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또, 생리위생공간을 실내에 계획하거나 수세식으로 하면 분노의 거름사용이 어려워지므로 비경제적이라는 주장 등으로 생리위생공간의 발전이 요원한 것처럼 나타났으나, 1980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오늘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주택의 생리위생공간과 용어의 변화과정을 밝힌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오늘날 한국 주택에서 사용되는 생리위생공간 용어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용어가 더 적합한 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리위생공간 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주택에서 사용되었던 다른 공간용어들에 대하여도 그 용어들이 어떻게, 왜 사라졌는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가 별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용어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런 용어를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하여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공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순주 외 2인(1989). 아파트의 욕실공간과 입욕 방식과의 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5), 47-58.
- 2) 서귀숙 외 4인(1998).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지 15, 49-61.
- 3) 서동연(1990). 주택의 욕실계획에 관한 연구. 고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신경주 · 이영심(1992). 일간지를 통해 본 주거환경문제의 연구(II)-분뇨에서 변소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3(2), 89-99.
- 5) 신화경 외 4인(1998). 한국 주거공간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문학작품에 나타난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9(2), 97-104.
- 6) 윤복자(1995). 「위생생활의 변천」(태평양 장학 문화재단,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 7) 이영심 · 신경주(1995). 서울 지역 아파트 욕실평면의 변천. 한국주거학회지 6(2), 57-68.
- 8) 이영심 · 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욕실에 대한 의식 · 만족 · 요구. 한국주거학회지 9(1), 43-54.
- 9) 이중우(1988). 체 · 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이희승(1998).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11) 정경숙(1987). 아파트 욕실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욕실의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주남철(199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 13) 최찬환(1986).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홍형옥(1995). 한국주거사. 민음사.
- 15) Frank, Ellen Eve(1979). Literary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6) 서귀숙(1996). 언어による建築的空間の表現に關する基礎的考察. 京郷工藝纖維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17) 서귀숙(1996). 文學作品の空間描寫における空間構成の部分と全體の關係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No.489.